

지방
자치단체장이
바라본 하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람과 함께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박준영 | 전라남도지사

하천은 본래 맑고 투명한 모습 그대로 수천년을 유유히 흘러오면서 자연의 생명의 근원이자 아름다움을 만끽하는 아늑한 휴식의 공간이었다. 하지만 하천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 할 때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앙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우리나라는 기상학적으로 여름철에는 몬순 계절풍의 영향으로 폭우를 동반하는 태풍이 자주 내습하고 집중호우도 빈번히 발생한다. 이 때문에 홍수조절을 위한 댐 개발, 관개 사업, 그리고 콘크리트화된 하천 개수 등을 추진함으로서 우리는 자연 재해로부터 위협과 물 부족의 고통에서 상당부분 벗어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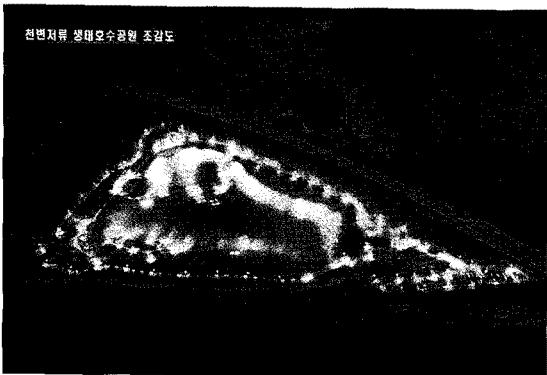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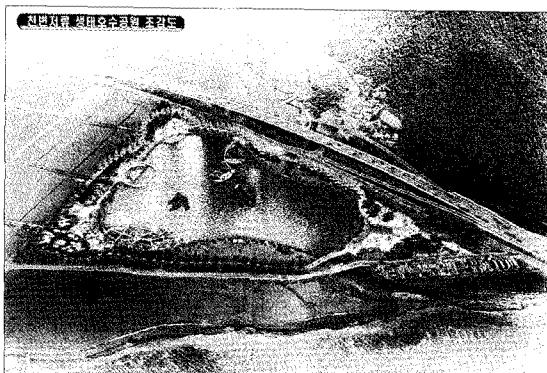
그러나 그동안 경제발전이라는 명분아래 산업화, 도시집 중화 현상으로 홍수피해의 잠재성을 증대시켜 왔으며 이와 관련 하천의 오염과 훼손도 급속히 진행되어 자연생태 기능

이 상실되고 사람들의 일상생활이 하천으로부터 점차 멀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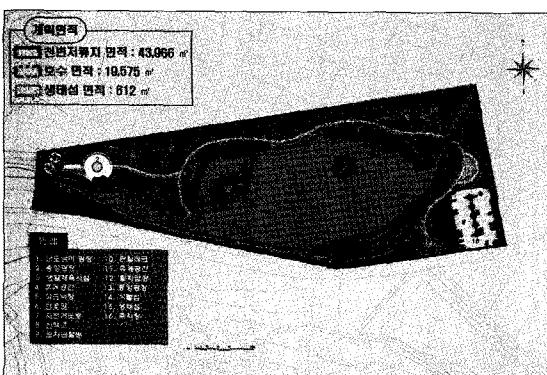
자연이 살아 숨쉬는 Green 전남

우리 전남은 영산강, 섬진강 등 7개의 국가하천과 555개소 지방하천 등 총 3,232km의 하천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치수사업은 하천제방을 직선화하여 홍수시 신속히 바다로 배출시키는 방향으로 주력하여 왔으며 제방의 개수 또한 복개, 콘크리트 블럭화로 하천 생태계가 파괴되고 각종 오물 및 생활쓰레기 투기로 악취와 해충의 서식처로 변해버렸다.

이처럼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어 예전처럼 실개천에 송사리 떼가 노닐고 사시사철 맑은 물이 다시 흐르는 하천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서 우리 도는 지난해부터 전국에



(그림 1)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지내 천변저류지 생태호수공원조성
주·아간 조감도(첨자모양)



(그림 2) 영암군 망월천 천변저류지 계획 도면

서 처음으로 전남 강진군 강진읍 송전리 지내 지방2급 하천인 강진천, 월남천, 송덕천, 춘전천 등 4개 하천이 합류되는 지점에 65억원의 예산을 들여 9만9천m² 규모의 자연친화적인 공법을 적용한 천변저류생태호수공원을 '07년 5월에 착공하여 '09년 12월 완공목표로 현재 시행중에 있다.

평상시에는 지역주민 휴식공간인 생태호수공원으로 활용

하다가 우기 집중호우시는 흉수조절용 담수기능으로 이용할 뿐 아니라 봄·가을 찾은 산불진화용수로도 유익하게 활용하게 된다.

이처럼 하천 개수 공사 시 편입되는 자투리땅이나 폐천 부지를 이용하여 크고 작은 다양한 호수공원을 자연 형 하천 개수공사와 병행 하므로 그 지역의 특색과 함께 자연이 살아 숨쉬는 Green 전남의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갈수록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산책로와 조깅코스, 자전거 하이킹, 수변공원조성, 벤치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춘 생태호수공원으로 계획하여 현재 10여개 지구를 추진 중에 있고 금년에도 우리지역에서 낙지로 유명세를 얻고 있는 영암군 득천 지구 등 3개 지구를 설계에 반영, 추진함은 물론 앞으로도 우리 전남 도내 60여 개소에 3,427억원을 투입 2015년까지 생태호수공원을 연차적으로 시행할 계획에 있다.

이와 같이 천변저류지 생태호수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과 함께 지역주민들도 하천을 가꾸고 사랑하는 자율적인 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그동안 하천오염으로 인해 우리 곁을 떠났던 자연생태계가 하천의 복원과 쾌적한 수변 공간 확보로 되돌아 올 것으로 기대가 된다.

물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의 발생 원천이고 우리인류에 가장 필요한 자원이며 발전의 원동력이다. 따라서 하천은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므로 사람과 함께 숨쉬며 살아가는 하천이 우리곁으로 가까이 다가올 날을 손꼽아 기다려 본다. ●

